



202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A I C I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1월 17일 설립한 기관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근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ACC재단 홈페이지



MISSION

아시아 문화콘텐츠의 진흥·보급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VISION

아시아 문화와 콘텐츠를 연결하는 문화서비스 전문기관



주요 사업

- 문화유통**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 콘텐츠 활용 및 국내외 유통
 - 아시아컬처마켓 운영
- 문화사업개발**
 - 아시아문화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 아시아문화 관련 출판물 기획 제작 및 발간
 - 아시아문화 관련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제작 및 보급
- 문화예술사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협력사업
 -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중화 프로그램 및 야외 공연, 축제 운영
- 어린이문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관리 및 운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체험관 및 도서관 콘텐츠 개발 운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 및 어린이가족문화축제 운영
 -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서비스사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편의시설 운영 및 대관사업

ASIA CULTURE CENTER

공연

두 개의 눈

The Two Eyes

초연연도 2020년

장르 판소리미디어극

창작진 무토, POST MNH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토, POST MNH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21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상부 셋업(LED&호이스트&키네틱) 1일
- 조명&레이저&음향 셋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테크니컬리허설 1일
- 출연진 리허설 1일

화물

- LED 등 무대 상부 5톤 2대
- 조명&레이저 5톤 1대
- 음향 및 무대 1톤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500석 이상)~대극장(800석 이상)
- 무대면적 : 폭 12m × 깊이 8m × 높이 8m



두 개의 눈
홍보 영상



효녀 심청이 눈 먼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가 용왕의 도움으로 환생하여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일반적인 <심청가>와 달리, <두 개의 눈>에서는 '심학규'의 일대기를 다룬다. 20세에 안맹한 심학규가 딸을 얻음과 동시에 부인인 객씨를 해산병으로 잃게 되고, 어린 딸을 어찌지 못하다가 동네 부인들에게 젖동냥을 해가며 키워내는데, 심학규의 남다른 부성은 효녀 '청이'를 키워낸다. 눈먼 심봉사의 사고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인당수 제물로까지 팔려가는 심청의 이야기는, 마지막 심청과 심봉사의 재회, 심봉사 눈뜨는 대목으로 전개된다. 기존 원안에서 가치관의 무게중심을 덜고, 관객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소리를 바라보면서 심학규만의 로드무비를 만든다. 비주얼과 음악, 퍼포먼스를 통해 판소리의 비장미나 해학보다 평범한 범인으로서의 심봉사에 대한 연민으로, 보다 입체적인 이면을 만들어 관객의 심연을 울리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다.

나는 광주에 없었다

I Wasn't There in Gwangju

초연연도 2020년

장르 연극

창작진 작·연출 고선웅, 작 김경주 안준원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아이엠컬처,
극공작소 마방진

관람연령 14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투어인원

65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 무대세트 및 조명 셋업철수 인원별도

일정

• 셋업 및 조명작업 5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2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소품, 조명, 음향 5톤 트럭 1대, 2.5톤 트럭 2대,
1톤 트럭 3대(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400석 내외 블랙박스 형태(체육관 등)

• 무대크기: 폭 35m × 깊이 20m × 높이 8m(최소)

※ ACC 예술극장 극장1 공연 시, 로드형 무대, 객석 400석 운영



나는 광주에 없었다
홍보 영상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계기로,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5·18 민주화운동의 전모를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감 없이 담아낸다. 관객 몰입형 공연(Immersive Theater) 방식으로 제작되어 관객들 스스로가 역사를 그리고 작품을 느끼고 몸소 체험할 수 있다.

1980년 5월, 광주의 한 어린아이는 엄마 등에 업혀 오빠가 돌아오길 기다린다. 하지만 오빠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소녀에서 숙녀가 되고, 숙녀에서 다시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 그러는 사이 오빠의 얼굴은 점점 잊히고 이제 더는 오빠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한편, 무대 위에서는 그해 5월의 순간들이 재현되고, 어느새 우리 모두는 알게 된다. 그해 5월, 오빠는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를. 한 아이에게서 잊혀가는 오빠의 얼굴이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얼굴이 아님을. 그리하여 공연장 밖을 빠져나오는 순간 보게 된다.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고 선명하게 남을 송고한 얼굴들을. 이 극은 그들과 그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노니는 한 편의 위령가(慰靈歌)다.



시간을 칠하는 사람

Time Painter

초연연도 2020년

장르 연극

창작진 연출 및 무대디자인 윤시중,
작 김민정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단 하땅세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65분

투어인원

50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4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객석 5톤 트럭 2대, 소품, 의상 1톤 트럭 1대
(무대기술(조명, 음향) 공연장의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대극장(800석 이상),

야외극장(이동형 객석 제작 및 사용)

• 무대크기 : 폭 15m × 깊이 30m × 높이 4m(최소)



시간을 칠하는 사람
홍보 영상



2018 창작스토리 콘텐츠개발 사업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
'시간을 짓는 건축가'를 모티브로 하여 1980년 광주
민주화항쟁의 최후 항전지였던 '전남도청'과 그 건물에 얽힌
'칠장이'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연극

전남도청 벽을 하얗게 칠하던 노인 김영식의 기억을
따라 전개되는 공연은 흰 칠로 지워야만 하는 아버지와
형형색색으로 그려야만 했던 아들의 시간을 통해 비극적인
현대 역사 속에서 평범한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작품은 극장이라는 공간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한다.

매 공연 소수의 관객만이 이동형 객석과 함께 작품의 흐름과
배우의 움직임을 따라 극장을 여행하듯 이동한다.
기계의 힘으로 전환하는 무대가 아닌 배우들의 힘으로
극의 시·공간을 이동하며 작품을 관람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시간이라는 벽에 붓질을 하는 사람
전남도청의 철거를 앞두고 철거장비와
공사장 인부가 모여든 아침.
도청의 외벽이 부스러질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없는 노인 김영식.
흰 붓질을 하면 아내 명심이 웃고,
또 한 번 붓질을 하면 아들 혁이 웃는다.
영식은 지워야만 했고,
혁이는 그려야만 했던 시간들...
벽들 한 장 한 장에 담긴
기억의 조각들을 이어 붙인다.
시간이라는 벽에 붓질을 한다.



접시꽃 길 85번지

Rose Mallow Street #85

초연연도 2021년

장르 연극

창작진 연출 최용훈, 작 김숙중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단 작은신화

관람연령 14세 이상

공연시간 100분

투어인원

29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5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2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5톤 트럭 2대, 조명/음향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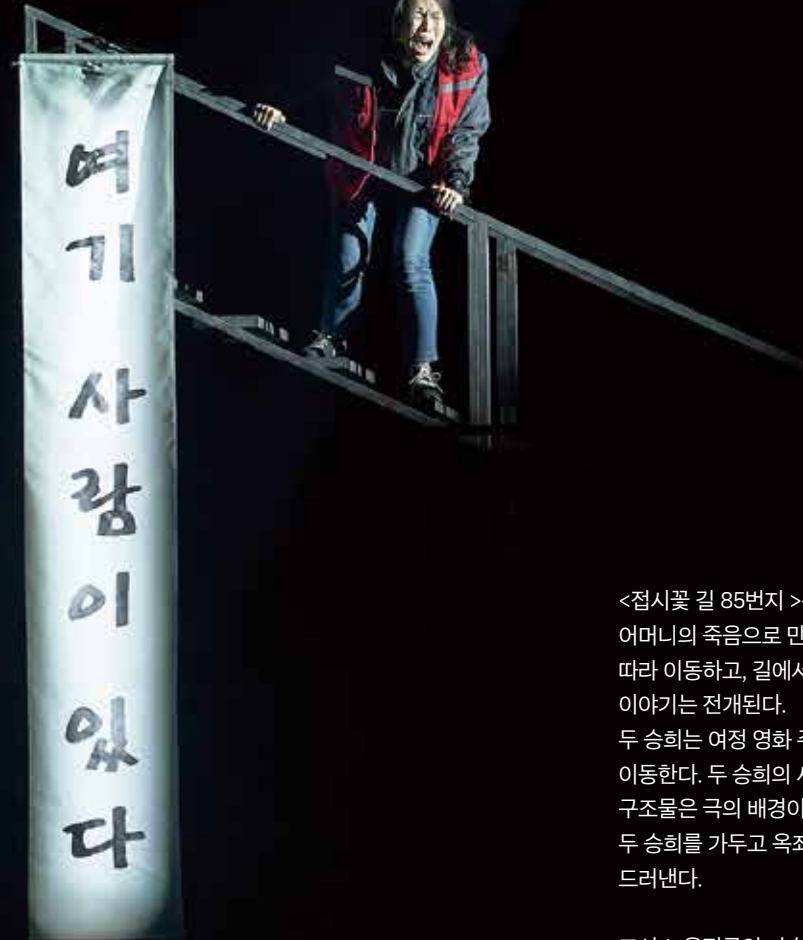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 이상)~대극장(800석 이상)

• 무대크기 : 폭 20m × 깊이 25m × 높이 8m(최소)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접시꽃 길 85번지
홍보 영상



<접시꽃 길 85번지>는 두 승희가 떠나는 여행이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만난 두 사람이 어머니의 길을 따라 이동하고, 길에서 조우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는 전개된다.

두 승희는 여정 영화 주인공처럼 무대 여러 공간을 이동한다. 두 승희의 세상을 형상화한 거대한 구조물은 극의 배경이자 어머니의 흔적이며, 두 승희를 가두고 옥죄는 사회구조로 이중성을 드러낸다.

조선소 용접공인 나승희는 고아가 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죽음으로 어머니에게 차승희라는 친아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름이 같다는 사실에서 지금껏 받았던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이해한다. 나승희는 차승희의 출소 날 교도소를 찾아가 어머니의 장례를 함께 치러주면 보험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차승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두 승희는 어머니의 장례를 위한 여행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다.

지정

Self-designation

초연연도 2021년

장르 SF 연극

창작진 작 장우재, 연출 박정희, 무대미술 여신동,
영상디자인 윤민철, 음향디자인 전민배 외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단 풍경

관람연령 14세 이상

공연시간 100분

투어인원

28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3-4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5톤 트럭 1대, 소품 및 조명 3.5톤 트럭 1대,

음향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미만)

• 무대크기 : 폭 10m x 깊이 7m x 높이 8m(최소)

지정
홍보 영상

©황선하



멀지 않은 미래, AGI(범용인공지능)가 사람의 인지신경을 직접 조절할 수 있고, 이를 정신상담 분야에 적용한 'AGI 정신과의사'가 등장한 시대. 몇 년 전 단편으로 세계적인 영화제에 진출하여 능력을 인정받은 영화과 4학년 '제니'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다. 제니는 AGI 정신과의사 '콜리'와의 상담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정'에 관심을 둔다. 지정은 제니가 힘들어 하는 심리적 장애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절하는 기법이다. 콜리는 제니의 지정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와중에 그의 심리적 장애요인이 예상과 다른 곳에 있다고 판단하고 제니와 함께 다른 방식의 지정을 시작한다. 이후 제니의 소식에 학교는 슬렁이고 제니의 선택이 정신적 자살이라는 논란까지 벌어지는데...

스토리 인 아시아

Story in Asia

초연연도 2019년
장르 판소리
창작진 프로듀서 유현진,
 소리꾼 이승희 김소진,
 고수 김홍식 이향하 신승태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입과손스튜디오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투어인원
 9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1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및 악기 1톤 트럭 1대, 조명 및 음향장비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미만)
 • 무대크기 : 폭 12m × 깊이 13m × 높이 8m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스토리 인 아시아
 홍보 영상



아시아권의 설화를 엮은 책 '백 개의 아시아'에서 입과손스튜디오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이 두 개 국가의 설화를 원작으로 채택하였다. 각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년'과 '소녀'가 남자 또는 여자로 성장하는 데에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전해 받은 지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원작은 권선징악, 주어진 삶(순리)에 순응하는 태도 등 고전적인 설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훈적 가치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 입과손스튜디오는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라는 큰 주제 아래, 주인공 '소년', '소녀'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지를 재조명한다. 이 과정에서 음악은 한국의 전통음악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전통음악인 '가물란'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이국적이면서도 이야기와 잘 맞물리는 리듬을 개발하였다. 또한 하나의 이야기를 2명의 소리꾼이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다인화자' 기법을 채택하여 더욱 폭넓은 형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마디와 매듭

Knottng the time

초연연도 2022년
장르 종합극
창작진 극본 배삼식, 음악 최우정, 연출·안무 정영두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투어인원
 41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 콘서트, 무용공연으로 변형이 가능하며,
 공연 구성에 따라 투어인원 조정 가능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2일
- 철수 1일

화물
 5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미만)
- 무대크기 : 무대크기 : 폭 35m × 깊이 20m × 높이 8m(최소)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마디와 매듭
홍보 영상



동지부터 하지까지: 춤과 노래로 엮은 여인들의 이야기
배삼식×최우정×정영두가 만드는 아름다운 한 편의 공연
 <마디와 매듭>은 자연의 시간을 살아내는 여인들의 삶을 살펴보는 작품이다.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 인간들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24절기가 작품의 큰 틀을 구성하며, 절기별로 달라지는 풍경과 세시 풍속을 배경으로 시간의 마디 마디 안에서 여인들의 ‘용이진 마음’ 서리고 ‘세월에 묻은’ 이야기들이 드러난다. 추위와 배고픔, 허리 펴 틈 없는 고단한 농사일을 견디는 날들 속에서 때로는 짓궂게 킁킁대다가, 때로는 떠나보낸 누군가와 한 시절을 절절히 그리워하기도 하고, 시원한 빗소리를 들으며 한입 베어 무는 복숭아에서 달콤한 휴식을 맛보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지난 세월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여인들의 삶은 장르간의 조화를 통해서도 구현된다. 이야기와 음악과 무용은 서로를 존중하고 끌어안으며 하나의 공연 안에서 나란하게 가능하다. 극본 배삼식·음악 최우정·연출과 안무에 정영두, 각 분야에서 동시대 예술을 대표하는 창작진이 절기에 따라 생동하는 여인들의 삶을 한 편의 아름다운 공연으로 빚어낸다.



척

Check

초연연도 2021년**장르** 현대무용**창작진** 안무·예술감독 안애순, 음악 박민준,
드라마투르그 김지연, 무대미술 김종석,
조명 이승호, 영상 추미림, 의상 이서윤,
제작무대감독 김지명**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제작지원** 옐로밤**관람연령** 8세 이상**공연시간** 60분**투어인원**

17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 셋업 및 철수 인력별도

일정

• 셋업 및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5톤 트럭 1대, 조명/음향 1톤 트럭 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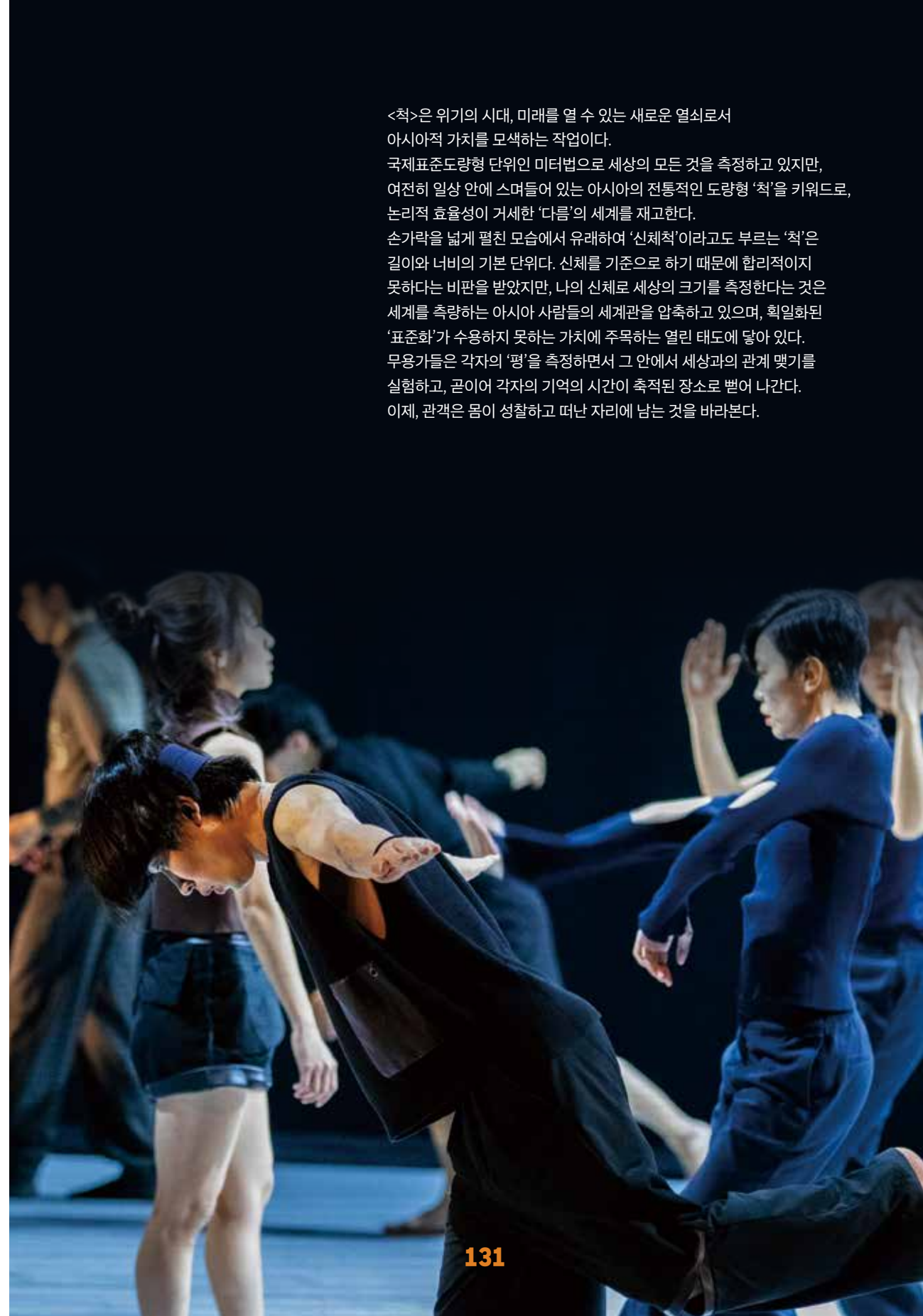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800석)

• 무대크기 : 폭 13m × 깊이 13m × 높이 18m(최소)

※ 공연장 장비리스트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임차 추가 발생

※ 본 공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무용커뮤니티 협력
사업으로 개발됨척
홍보 영상

<척>은 위기의 시대,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열쇠로서
아시아적 가치를 모색하는 작업이다.

국제표준도량형 단위인 미터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측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 안에 스며들어 있는 아시아의 전통적인 도량형 '척'을 키워드로,
논리적 효율성이 거세한 '다름'의 세계를 재고한다.

손가락을 넓게 펼친 모습에서 유래하여 '신체척'이라고도 부르는 '척'은
길이와 너비의 기본 단위다. 신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나의 신체로 세상의 크기를 측정한다는 것은
세계를 측량하는 아시아 사람들의 세계관을 압축하고 있으며, 획일화된
'표준화'가 수용하지 못하는 가치에 주목하는 열린 태도에 닿아 있다.
무용가들은 각자의 '평'을 측정하면서 그 안에서 세상과의 관계 맺기를
실험하고, 곧이어 각자의 기억의 시간이 축적된 장소로 뻗어 나간다.
이제, 관객은 몸이 성찰하고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을 바라본다.

호모 루피엔스

Homo Lupiens

초연연도 2021년
장르 현대무용
창작진 안무·연출 김경신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플러그드바디즈
수상이력 2022 한국현대무용협회 안무가상, 무용수상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34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조명작업 5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2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5톤 트럭 2대, 조명/음향 1톤 트럭 1대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 이상)~대극장(800석 이상)
 • 무대크기 : 폭 12~28m 이내 × 깊이 10~28m 이내 ×
 높이 7~10m 이내



호모 루피엔스
 홍보 영상



<호모 루피엔스>는 2020 ACC 현대무용 인큐베이팅 창·제작 쇼케이스 공연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2021년 본 공연으로 제작되기 전 국내외 주목을 받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 무용극이다.

<호모 루피엔스>는 미래의 인류상을 그리는 동시에 인간이 쫓는 욕망을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예술성을 잃지 않으면서 관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성 있게 제작된 무용극으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해볼 수 있는 작품이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 결과물들이 선을 보이고 있으며, 미래의 새로운 연구에 대한 예측들이 직업에 대한 변화와 인간의 유형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해왔던 많은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면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유희성. 미래에는 그 유희의 인간이 지식의 인간과 도구의 인간 그리고 로봇까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호모 루덴스(Homo Ludens)와 호모 파베르(Homo Faber)의 합성어인 호모 루피엔스(Homo Lupiens)라는 인간 유형을 의미하는 단어를 창출하였다. 인플러그드바디즈의 호모시리즈 중 세번째 작품인 <호모 루피엔스>에서 호모 루피엔스는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과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담은 용어로 사용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움직임으로 묘사하여 미래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유희의 인간과 지식의 인간의 경쟁이 만들어낸 ‘호모 루피엔스’. 인생은 탈출의 연속이다.



ASIA CULTURE CENTER

청소년/어린이 공연

길 위의 아이

A Child on the Road

초연연도 2022년

장르 청소년극/연극

창작진 작 김지현, 연출 이영숙,
무대·오브제, 의상디자인 강정화,
음악 김재훈, 조명 정유석, 영상 정혜지,
애니메이션 정경은, 사운드 박진호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올리브와핀콩

수상이력 2022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김숙희 특별상

관람연령 12세 이상

공연시간 65분

투어인원

16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영상, 음향, 조명작업 3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영상, 무대, 소품 1톤 트럭 1대
(조명, 음향 극장 장비 사용)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중극장(300석 이상)~대극장(800석 이상)

• 무대크기 : 폭 12m × 깊이 8m × 높이 7m(최소)



길 위의 아이
홍보 영상



국가가 자행한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사례인 1960년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의 소년수용소 *선감학원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고립된 두 소년은 탈출의 한 방편으로 방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들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둘은 죄의식에 휩싸여 혼란을 겪는다. 그들 또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죄의식은 둘의 상상놀이 안에 드러나게 되고 각자의 입장이 다름을 알게된다. 친구인 둘의 관계는 처음 탈출을 도모할 때와 달리 변질된다. 2인극 형식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놀이가 거칠고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주고, 소리를 통해 밖과 안을 단절시키며 현실에서 비현실로,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으로, 놀이에서 무의식으로의 전이를 통해 관객은 소년들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 함께 침잠해 들어간다.

*선감학원 : 1942년 조선총독부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설치, 1970년대 말까지 존속된 소년 감화원



개굴개굴 고래고래

Frogs and Whales

초연연도 2021년
장르 어린이연극
창작진 연출 이도윤, 작 이도윤 최하늘,
 안무 구선진, 작곡 옴브레 손희남 김솔지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단 즐겨찾기
수상이력 2021 춘천인형극제 대상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공연시간 40분

투어인원
 13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공연일 철수
화물
 무대, 소품 1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
 • 무대크기 : 폭 7m × 깊이 7m × 높이 4m



개굴개굴 고래고래
 홍보 영상



그림자극과 인형극을 중심으로 상상력과 공감각을 일깨워 주는 공연!

베트남 전래동화 '개구리가 올면 왜 비가 내릴까?'를 바탕으로 재창작한 어린이연극이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해 모험을 떠나는 개구리 구르구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고통 받는 자연과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고래 선생님을 찾기 위한 구르구르의 모험
 비가 내리지 않아 점점 사막화 되어 가는 숲.
 개구리 구르구르는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함께 고래 선생님을 찾아 바다로 떠난다.
 배를 타고 고래 선생님을 찾아 나선 구르구르는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 빠져버리는데...
 구르구르는 무사히 고래 선생님을 만나고 다시 비를 내릴 수 있을까?



거인 앙갈로

Giant Angalo

초연연도 2021년
장르 어린이음악극
창작진 작 이가현, 연출 최은정,
 음악감독 이우영 신창렬,
 안무 지경민, 작곡 신창렬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국악그룹 그림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주 관객층 : 미취학아동 및 저학년 가족단위 관객)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8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2일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공연일 철수
화물 무대 1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
 중극장(800석 미만)
 • 무대크기 : 폭 7m × 깊이 6m × 높이 3m

작품소개

춤추는 음악극 <거인 앙갈로>는 필리핀 민담 ‘바닷물은 왜 짭까?’라는 이야기에 우리나라 전래동화 ‘소금을 내는 맷돌’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새롭게 창작한 어린이 음악극이다.
 필리핀 전통악기와 유사한 악기를 사용하고 필리핀 민요 오르데-에(Orde-e)를 편곡하여 주요 주제곡으로 활용하는 등 음악 속에 아시아를 담았다.
 거인 앙갈로와 두 사람을 통해 우정, 배려, 이기심을 이야기하며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줄거리

옛날 어느 마을, 소금섬에는 커다란 맷돌이 뱅글뱅글 돌며 끝없이 소금을 쏟아낸다.
 사람들은 바다 건너 소금섬에서 소금을 가져다 먹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풍량이 닥쳐 더 이상 소금을 가지고 올 방법이 없다. 바다를 보며 한숨만 쉬던 사람들은 마을 근처에 사는 거인 앙갈로를 떠올린다.
 과연, 사람들은 앙갈로의 도움으로 소금을 얻을 수 있을까?



거인 앙갈로
 홍보 영상



괴물 연을 그리다

YEON - The Story of a Monster

초연연도 2020년

장르 복합

창작진 연출·작 이미희,
음악감독·작곡 이보람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0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1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공연일 철수

화물

무대 1톤 트럭 3대(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중극장(800석 미만)

• 무대크기 : 폭 7m × 깊이 6m × 높이 3m

※ 무장애(배리어 프리) 공연 가능

(화면해설 및 음성해설 제공)



괴물 연을 그리다
홍보 영상



“괴물 연을 그리워하다”

“괴물 연을 그림 그리다”

“괴물 연을 상상하다”

중국의 ‘춘절’에 대한 사실적 기원에 상상력을 더해 새롭게 재구성하여 소년과 괴물 연의 슬픈 우정을 이야기한다.

그림꾼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듣게 된 중국의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 도화촌에 부모 잃은 한 소년과 그가 그린 그림 속 친구 ‘연’의 오랜 우정 이야기,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떠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에 하루 마을에 나타나는 ‘연’, 마을 사람들은 ‘연’을 괴물로 여기고 공격하는데...



달을 묻을래

Burying the Moon

초연연도 2022년
장르 어린이 연극
창작진 연출 천정명, 대본 박지선, 음악감독 이서연, 움직임 지도 변영미, 조명 디자인 우수정, 오브제 디자인 서현제, 의상 디자인 임은주, 음향감독 전민배, 무대감독 서현제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야기양동이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투어인원
 14-15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 무대크루 2명 /조명크루 3명 별도
일정
 • 셋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테크 리허설 및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무대, 소품 1톤 트럭 1대(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100석 내외) ~ 중극장(300석 내외)
 • 무대크기 : 폭 11m × 깊이 9m × 높이 5m(최소)



달을 묻을래
홍보 영상

하루에 딱 한 번 그것도 깜깜한 ‘밤’에만
 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갈 수 있다면.....
 아니, 심지어 화장실이란 말조차 쓸 수 없다면?

<달을 묻을래>는 동화책 ‘달을 묻다’(앙드레 폴랭)를
 원작으로 재창작한 어린이 연극이다.
 네 명의 이야기꾼이 말과 움직임, 때로는 인도 느낌이
 물씬 나는 춤과 노래로 주인공 ‘라티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화장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 지역 여성으로,
 침묵을 강요당하지만 ‘라티카’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직접 만들고자 한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 ‘라티카’가 살고 있다.
 라티카 마을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여자들은 하루 내내 볼일을 참다가
 어두워지면 들판으로 나간다.
 라티카가 들판에서 하는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달은 세상을 환히 비춘다.
 알미운 달을 땅에 묻고 싶은 라티카는
 드디어 곡괭이를 든다. 쿵! 쿵!
 라티카는 과연 달을 묻을수 있을까?



마법의 샘

The Magic Spring

초연연도 2020년

장르 연극

창작진 연출 정지현, 작 문진영,
음악감독·작곡 이승규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로젝트그룹 스토리너머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0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1일
- 배우 리허설 1일(공연일 가능)
- 철수 1일(공연일 철수)

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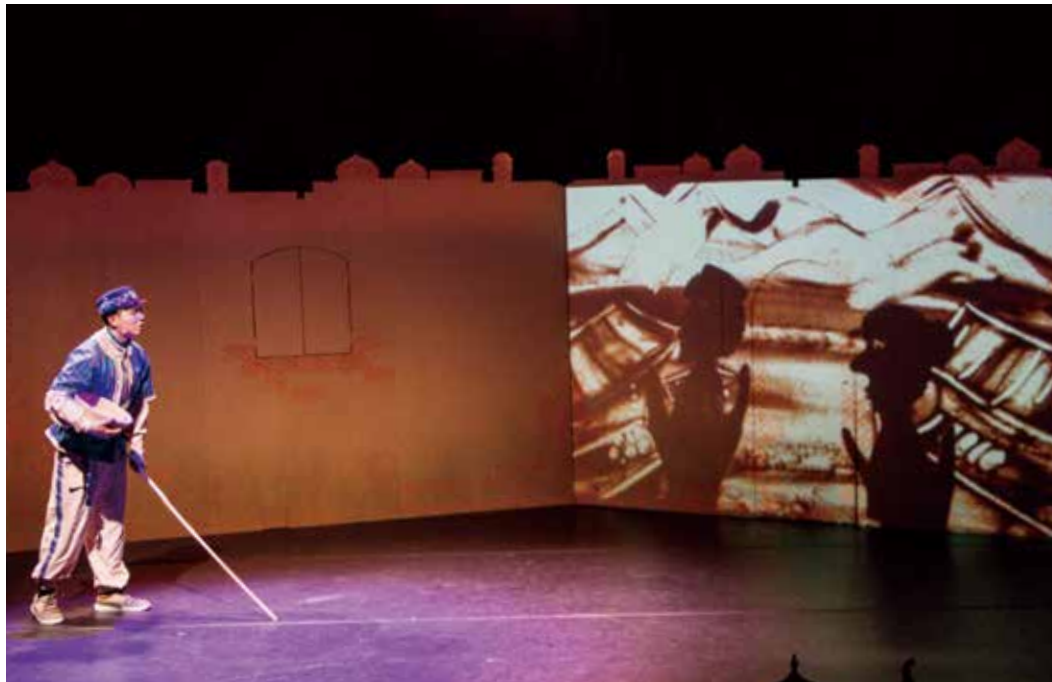
1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100석)~중극장(500석)
- 무대면적 : 폭 10m × 깊이 7m × 높이 7m(최소)



마법의 샘
홍보 영상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잊고 있던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

타지키스탄의 전설을 바탕으로 창작된 <마법의 샘>은 먼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 지금 여기의 상처 입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서로를 치료하고 구할 수 있을까? 무대라는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평면의 샌드아트와 다양한 그림자 퍼포먼스는 입체적이고 활동적인 배우들을 만나 공연을 즐기는 모두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마음을 두드리는 음악과 이국적인 의상은 타지키스탄의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관람 포인트이다.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신비한 ‘마법의 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더 강력하고 더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마법의 샘을 찾아 헤맸던 왕은 장터의 눈 먼 소년이 이상한 노인이 가져온 마법의 샘물로 눈을 뜨게 됐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에 욕심 많은 왕은 소년을 잡아 오게 한 뒤 감옥에 가두고 사라진 노인이 나타날길 기다린다. 과연, 욕심 많은 왕은 노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마법의 샘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세 친구

Three Friends

초연연도 2020년
장르 인형극
창작진 각색·연출 신인선, 희곡 양수근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형극연구소 인스
관람연령 4세 이상
공연시간 45분

투어인원
 11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 셋업인원 별도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배우 리허설 1일
- 철수 1일

화물

- 무대 : 2.5톤 트럭 1대 / 소품, 음향 - 스타렉스 밴 1대
- 조명 :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
- 무대면적 : 폭 12m × 깊이 8m × 높이 7m(최소)



세 친구
홍보 영상



‘도대체 태양은 밤 동안 어디에 숨어있는 걸까?’

도대체 태양은 밤에 어디에 숨는지 너무나 궁금해진 새끼 염소, 새끼 양, 송아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친구인 세 마리의 아기 동물들은 목동들의 눈을 피해 몰래 유르트를 빠져나와 모험을 떠난다. 호기심이 많은 새끼 염소, 똑똑한 새끼 양, 힘센 송아지, 어린 세 친구들은 초원을 따라 먼 길을 달려 태양이 어두운 동안 숨어 지내는 곳을 찾아 달리고 또 달린다. 세 친구들은 여러 위기와 고비를

맞이하게 되지만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를 지켜준다. 맹수들을 만나는 가장 큰 위기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온 친구들은 먼 길을 달려 저녁 무렵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은데.. 다만 잘 되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
 어른들은 당연히 잊어버린, 하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궁금한 질문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어디로 가야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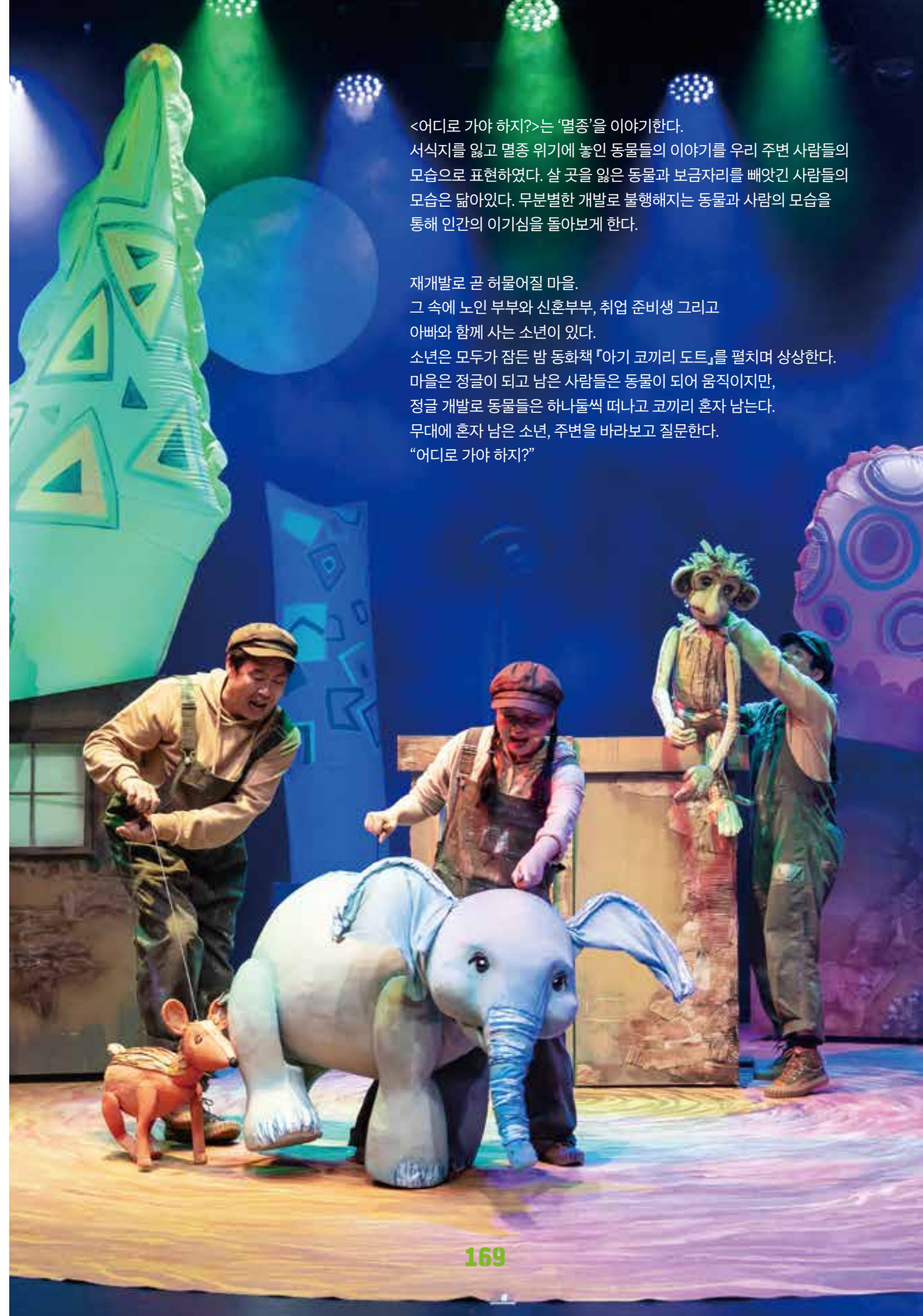
Where should I go?

초연연도 2021년
장르 어린이연극
창작진 연출 박재춘, 작 김수진 서 운,
 음악감독 채석진,
 무대디자인·제작 예술공장(김응형)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놀터 극단 아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0분

투어인원
 10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2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공연일 철수
화물
 무대, 소품 1톤 트럭 2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300석 미만), 중극장(800석 미만)
 • 무대면적 : 폭 8m × 깊이 8m × 높이 4m



어디로 가야 하지?
 홍보 영상



<어디로 가야 하지?>는 ‘멸종’을 이야기한다.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살 곳을 잃은 동물과 보금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은 닮아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불행해지는 동물과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돌아보게 한다.

재개발로 곧 허물어질 마을.
 그 속에 노인 부부와 신혼부부, 취업 준비생 그리고
 아با와 함께 사는 소년이 있다.
 소년은 모두가 잠든 밤 동화책 『아기 코끼리 도트』를 펼쳐며 상상한다.
 마을은 정글이 되고 남은 사람들은 동물이 되어 움직이지만,
 정글 개발로 동물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코끼리 혼자 남는다.
 무대에 혼자 남은 소년, 주변을 바라보고 질문한다.
 “어디로 가야 하지?”

출동! 마임소방관

Let's Go! Mime Artists-Turned-Firefighters!

초연연도 2018년
장르 마임극
창작진 연출 이정훈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판토마임팩토리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45분

투어인원
 9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셋업 및 음향, 조명, 배우 리허설, 철수 포함 1일
화물
 1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100석), 중극장(300석 미만)
 • 무대면적 : 폭 8m × 깊이 5m × 높이 5m(최소)
 ※ 어린이집, 학교 등 투어 가능



출동! 마임소방관
홍보 영상



소방관 아저씨들의 소방훈련과 화재진압 모습을 마임으로 알아가는 안전교육공연

따분하지 않고 신나는 즐거운 공연방식으로 소방안전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쉽게 접근하고자 한다. 마임, 저글링, 마술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공연을 통해 실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으로 변신한 마임맨들의 좌충우돌 안전이야기 공연 시작과 함께 객석에서 무언가를 찾는 마임맨들. 불을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요령도 알려주며, 음악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 소방호스가 관객들에 손에 쥐어지기도 하며 일부 관객들이 무대에 나와 즐거운 상황에 함께 참여하며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 배워본다.

하티와 광대들

Hati and the Clowns

초연연도 2020년
장르 연극
창작진 연출·극작 박정운
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단 토박이
관람연령 5세 이상
공연시간 55분

투어인원
 10명(스태프 및 출연진 포함)
일정
 • 셋업 및 음향, 조명작업 1일(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상이)
 • 공연일 철수
화물
 1톤 트럭 1대
공연장 규모
 • 객석규모 : 소극장(100석)~중극장(500석 이하)
 • 무대면적 : 폭 10m × 깊이 7m × 높이 7m(최소)



하티와 광대들
홍보 영상



비슈누신이 지키는 황금나무 열매를 찾아 떠나는 신비한 모험!

<하티와 광대들>은 '생명열매, 황금열매'라는 고대 인도의 설화를 소재로 창작되었다. 이 이야기에는 인간의 고귀한 희생, 생명, 죽음 등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인형, 가면, 그림자 등 다양한 오브제와 기법,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의상 등 수 많은 삶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인도의 이국적인 모습을 담았다.

황량한 사막에서 마주친 왕과 아이, 그들은 과연 황금나무를 찾을 수 있을까? 죽음의 사막, 신기루 넘어 '비슈누' 신이 지키는 고귀한 황금나무가 있다. 황금나무에는 생명열매와 죽음열매가 열려있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인도의 '굽타' 왕은 황금나무에 열려있는 생명열매를 찾아 떠나면 여정을 떠난다. 사막을 해매는 고된 여정 중 '굽타' 왕은 황금나무의 죽음열매를 구하러 가는 아이 '아소'를 만나게 된다. 왕이 일으킨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아소는 왕을 미워한다. 티격태격 우여곡절 끝에 굽타왕과 아소는 함께 황금나무를 찾아 떠나게 되고, 황금나무를 지키는 비슈누신은 갖은 방법으로 그들을 막으려 하는데.....



ASIA CULTURE CENTER

피리
리엄

찬란함의 무덤

Cemetery Of Splendour

이 시대 가장 주목 받는 영화인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작품연보는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점점 깊어지는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쟁과 사랑, 꿈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정교한 미로로 펼쳐진다. 깊어지는 수면처럼. 태국 북동부에 있는 쿤캔은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고향이자, 2015년에 그가 펼치는 새로운 영화적 상상의 현장이다. 수면병에 빠진 병사와 그를 간호하는 주부가 만나고, 그 충돌은 여러 층위의 현실을 빚어내는 제식적 단초가 된다. 위라세타쿤의 부모가 의사로 근무했던 병원, 끝없이 질병에 관한 영화들을 보여줬던 학교 등 사적인 기억 속의 장소들은 그가 꾸는 영화라는 꿈속에서 새로운 현실들을 직조해낸다. 그리고 두 상상적 인물들은 그 속에 숨는다.

다층적 현실로 이루어지는 영화적 미로는 작가 자신의 무의식적 거울이며 동시에 태국의 역사적 단상이기도 하다. 몽상과 정치는 서로를 횡단하고 투영한다. 두 남녀가 서로의 잠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듯. “나는 이 영화를 열병에 걸린 태국에 대한 반추로서 만든다. 이는 또한 초등학교, 병원, 도서관, 호수 등 기생충처럼 나를 점령한 기억 속의 장소들에 대한 사적인 초상이기도 하다. 영화 속의 잠자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는 현실의 질병을 차단하고 영속의 꿈속에 숨는다.”

제작연도 2015년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한국, 멕시코, 미국, 노르웨이
러닝타임 120분 21초
상영포맷 DCP
컬러정보 color
감독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수상이력 2016 빌드로슈영화제 감독상
 2015 아시아태평양영화상 최우수작품상



